

완도해조류박람회 성과... 수출계약 이어져

홍콩 선화그룹 재패니스푸드와 500만달러 계약

郡개척단 8월 캐나다·10월 미국시장 공략 나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개최 효과로 해외수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 해외시장 개척단은 박람회 당시 맺은 계약에 따라 홍콩에서 5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캐나다에 이어 미국 시장 등도 공략할 예정이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 해외시장 개척단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홍콩을 방문했다. 시장 개척단

은 신우철 군수를 단장으로 JS코리아, 한국전북수출협회, 완도식품수출협회 등 군내 10개 수산기업과 단체 관계자 등 모두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개척단은 지난 20일 홍콩 선화그룹 재패니스푸드와 500만달러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번 수출 계약은 지난 4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 중 완도군과 홍콩 선화그룹 재패니스푸드간 체결한 업무협약이

구체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져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완도군의 설명이다. 군은 또 선화그룹 재패니스푸드와 홍콩 현지에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SEA FOOD 대전'을 개최하는 등 홍콩시장을 집중 공략했다. 선화그룹 재패니스푸드에서는 그룹 대표가 직접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참가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복을 비롯한 수산물의 생산시설과 가공공장을 직접 확인하며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완도군은 오는 8월께 캐나다에 해외시

장 개척단을 파견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LA 한인축제에도 참가해 해외수출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완도군은 또 올해 서울 강서구 내에 완도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 신선한 완도산 수산물을 수도권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산물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 수산물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



진도군 초중생 금연 교육 진도군과 진도교육청은 최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초·중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체험형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 3개월간 칙녕굴 집중 제거

전문작업단 18명 선발

진도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산림과 가로수 피해는 물론 도로 경관을 훼손하는 칙녕굴을 집중 제거한다"고 21일 밝혔다. 진도군은 올해 처음으로 칙녕굴 제거 전문작업단 18명을 선발했으며, 주요 도로변과 하천변, 생활권 연접 산림의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추진되는 칙녕굴 제거 대상지는 국도 18호선, 지방도, 해안도로 등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군은 다만 이번 칙녕굴 제거 작업에는 기존 반벨·근사미 등과 같이 인체와 농작물에 유해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인력 제거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칙녕굴은 왕성한 번식과 빠른 성장으로 자연 미관을 저해하고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며, 가로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번 칙녕굴제거 전문작업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녹색 일 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군 경로당 269곳 에어컨 100% 설치

진도군은 "관내 모든 경로당에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어르신들이 충분한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100% 보급·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경로당 에어컨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을 실시해 7개 읍면 경로당 269개의 경로당에 에어컨을 보급했다. 진도군은 관내 사회단체 이·취업시 및 체육행사 개최시 에어컨 등을 기증받아 설치를 앞당겼다. 군은 이와 함께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 1개소당 연평균 최대 200만원까지 냉·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군 뮤지컬 '천변 카바레' 공연

내달 6일 해남문화예회관



부모님과 함께 보고 싶은 공연으로 알려진 뮤지컬 '천변카바레'가 해남을 찾는다. 해남군은 "다음달 6일 해남문화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창작 뮤지컬 천변카바레 공연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천변카바레는 1970년대 서울 천변카바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창작뮤지컬이다. 1960~70년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요절한 가수 배호의 음악을 비롯한 라이브 8인조 빅밴드 소울트레인이 직접 연주하는 다양한 클럽 음악, '커피 한잔', '안개 긴장충단공원', '노란 사쓰의 사나이', '키다리 미스터 김' 등 주옥같은 노래와 연주 등도 어우러진다. 공연은 7월 6일 오후 7시 30분이며, 오는 28일 오전 8시 40분부터 해남문화예회관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예매한다. 입장료는 5000원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K-water 진도수도관리단 가뭄 고통 관사·독거도 생수 2700명 지원

진도군과 K-water 진도수도관리단은 "최근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조도면 관사도, 독거도 지역 총 97세대 153명에게 먹는 물 1.8리터 2700명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0일에도 조도면 대마도, 독거도, 관사도 주민들에게 먹는 물 1.8리터 1800명을 긴급 지원했다. K-water 진도수도관리단은 가뭄피해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평일에

완도 소안항일운동기념 전국 학생백일장

내달 14일 시·산문·그림 3부문...7일까지 접수 됐다. 소안도는 일제 강점기에 전국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격렬한 항일운동을 펼친 곳으로 유명하다. 작은 섬에서 69명의 독립운동가와 20명의 독립유공자 등 89명을 배출해 항일운동의 성지로 불린다. 참가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번 백일장은 매년 이 시기에 개최하는 소안항일운동기념 추모제 행사 중 하나다. 추모제는 백일장 외에도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108주년 기념 연극 공연, 당사도 등대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대형 모텔, 회사 사정상 매매.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20일 오픈예정
- 동업 하실분 환영!
- 연 순수익 3억정도 가능
- 연수원, 수련원 등 기타시설 이용 가능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법인체 인수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